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8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24일)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佛法이 시작된 그 날을 기리며

은 불자들이 보리수 모양의 등을 공양하는 모습.

오는 음력 12월 8일(양력 · 1월 24일)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이다. 오늘날 우리가 삶의 등불로 삼고 있는 불법은 그날로부터 온 것이다. 서울 조계사는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 성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구랍 12월 초부터 '보리수 등 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글 · 사진=박재완 기자

남북관계 해빙모드에 불교 교류도 '청신호'

조계종 · 천태종, 北조불련과 새해인사

1월 5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확정되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즉각 논평을 발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추본은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관한 논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를 크게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넘어,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는 물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위급 회담 개최 결정에
민추본 즉각 환영 논평 내
"경색 관계 해소하는 물꼬"

이어 "우리 불교계는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일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조계종 · 천태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도 무술년 새해 첫 인사로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텄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월 1일 "새해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의 교류와 연대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우리 불교도들이 서로 합심해 겨레 앞에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서신을 조불련 중앙위원회 강수린 위원장 앞으로 보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도 같은 날 "새해에 위원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모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바란다. 새해에 우리 남북 불교도들은 더욱 돈독한 불심으로 화합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에 강 위원장은 "희망찬 새해에도 무신불립을 바탕으로 귀 종단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불교도들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무술년 새해 경색된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풀려가면서 한동안 단절된 불교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훼손에 따른 보수공사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돼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호섭 · 박진형기자

이젠 '전법 · 포교' 행정도 모바일로

조계종 포교사단,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월 5일 오전 10시,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 정차해있는 지하철에 앉아 있다.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포교사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지만, 머리 속에는 포교사단 지역별 정진대회 관련 업무 처리로 가득하다.

근심도 잠시, 윤 포교사단장은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간편한 로그인 절차를 거치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부터 올라와 있다. 손가락 클릭 몇 번에 결재 끝. 윤 포교사단장은 전자결재 서류에 있는 문자 전송을 누르자, 결재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일괄 발송됐다.

스마트폰 이용자 3000만명, 모바일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불교계 전법 · 신행단체의 행정업무는 서류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사단이 전법 · 신행단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전국 전법 포교 행정업무에 모바일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상근직이 부족한 전법 포교 현장에서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1월 1일부터 본단을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월 중 시범지역단을 선정해 2월부터는 지역단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광현 포교사단 본단 사무처장은 "포교사단 본단과 지역단의 행정업무를 규격화, 표준화함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통신서비스업체의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임대 형식으로 도입해 문서 결재 전산화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가장 큰 장점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이다. 포교사단의 경우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1주일 단위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 본단의 경우 상근직원이 있지만 상근직원이 없는 지역단의 경우 지역단장 주재의 회의가 이뤄진 뒤에 업무가 진행됐다.

행정처리 효율성↑

양식 규격화 · 실시간 결재
행정 선집행 위험성 감소
본단 · 지역단 간 소통 고리

소규모 조직에 유리

기성프로그램 아웃소싱해
1인 7000원 수준 비용절감
웹하드 문서보관, 보관용이

정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포교사들이 본업이 있는 관계로 사무처의 경우만 해도 매주 수요일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 이전에는 선집행 후승인 등의 업무 책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적은 인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는 전법 포교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포교사단의 경우 매달 수신하는 공문은 60건으로 발신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여 건에 이른다. 전자결재에 사용되는 전자서류 양식 통일로 품의서류 작성 등 업무량도 격감된다. 이와 함께 각종 서류 보관 또한 PDF 형식으로 웹하드에 보관돼 사무공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상황이 영세한 전법 신행단체 상황에서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포교사단이 도입한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은 SK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임대한 것으로 총 예산은 940만원이 소요됐다. 본단 결재권자 8명을 비롯해 각 지역단의 결재권자 및 사무처 직원 112명의 이용금액으로 1인당 월 7000원 수준이다. 개발비용이 들지 않고, 적은 인원일수록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포교 전법의 행정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번 시스템 시작으로 포교사간 네트워킹을 비롯해 모바일 · 디지털 재교육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IT업체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포교 전법에서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모바일 반응형 사찰 웹사이트를 비롯해 포교 전법의 변화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기자	0명	① 경력기자: 기자 경력 5년 이하 ②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2.접수방법 : 서류 양식제한은 없으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응시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인 기명 기사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십시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합니다.(문의전화 : 02-2004-8204)

